

# 목포 삼학도 '삼락'을 아시나요

### 보는 즐거움-김대중기념관·어린이 바다 과학관 먹는 즐거움-종합수산물시장·해산물 거리서 5매 타는 즐거움-요트 50척 계류·내달부터 카누 시승

삼학도(三鶴島) 삼락(三樂)을 아시나요. 오는 6월부터 삼학도에 가면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타는 즐거움' 등 삼락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보는 즐거움으로 먼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하 기념관)'이 내달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가 20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기념관은 전시동과 컨벤션 동

으로 나뉜다. 전시동은 영상실을 비롯해 4개의 전시실과 대통령직무실로 꾸며졌고, 컨벤션동은 다목적강당과 자료실, 세미나실을 마련해 국제회의나 워크숍, 특별기획전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에는 노벨평화상 기념메달, 상장, 학창시절 학적부, 정치입문 당시 연설문, 옥중서신, 미국망명 당시 사용한 사무실집기, 생활소품, 대통령 선서문, 대통령 업무 당시 사용한 소품, 저작도서 50여권 등 총 3830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유

품으로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입은 대통령 내외의 턱시도와 한복이 꼽힌다. 또 기념관과 500m 거리는 지난 2월 개관한 '어린이 바다 과학관'이 위치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개관 3개월여 만에 관람객이 1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먹는 즐거움'으로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목포 종합수산물 시장과 해산물 거리 위치해 찜뽕 목포 5미(味)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다. 요즘에는 병어가 제철을 맞아 외국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타는 즐거움'도 빼놓

을 수 없다. 목포시는 삼학도에 지난 2009년 요트 마리너 시설을 설치해 현재 50여 척이 계류돼 있다. 시는 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시 소유 '해맑은 호(51ft급, 19t)'를 오는 6월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시승인원

은 최대 25명, 1일 2회 운행한다. 사전 예약(10일 전)은 필수다. (문의 270-8546) 또 삼학도에서 6월부터 카누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소 삼학도와 중 삼학도에 조성된 수로 1.5km를 직접 노를 저어 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카누 10대가 구비돼 있다. 탑승인원은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 등 3명이며, 소요시간은 40~50분 정도다. (문의 282-9781)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의 한과 전설이 서린 삼학도가 앞으로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올 관광객 1000만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삼학도 주변 즐길거리. 목포종합수산물시장, 카누 탑승장, 어린이 바다과학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요트 탑승장, 해산물거리, 내항, 삼학도, 외항



## '해남 반시 고구마' 가공 공장 준공

### 1일 1.4t 생산 가능

해남대표 특산물 고구마의 첫 가공 식품인 '해남 반시 고구마'를 생산하게 될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 가공공장이 27일 준공됐다. <사진>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준공된 가공공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군에서 역점 추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중 하나로 총사업비 31억 원 중 15억 원이 투입됐다. 고구마주식회사는 반시고구마와 함께 고구마 페이스트와 삼각군고구마에 대한 식품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고구마 주산단지로서 지난해 700여 농가가 1600여ha에서 2만2000여을 생산해 239억의 소득을 올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모내기 체험.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지난 26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친환경농업관찰학습장에서 모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전통방식으로 재현한 체험행사에는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도 제공>

## 목포 행정기구 개편

목포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된다. 이번 기구개편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사항을 반영하고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 행정'추진을 위한 부서별 기능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구 개편으로 행정복지국의 명칭이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바뀌고, 관광경제국 소관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2개과 신설에 따라 관광기획과와 관광사업과가 '관광과'로, 보건사업과와 생활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시 기구는 4국 24과, 1회회, 1직속기관, 3단 13과 2사업소, 23동으로 기존과 같지만 담당(6급) 6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신안 지도서 내달 5~9일 병어축제

신안군 지도읍 신안수협 송드위관장에서 다음달 5일부터 5일간 '병어 축제'가 열린다. '병어의 맛 그대로 명품 신안 병어 대향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병어 비빔밥 만들기, 시식회, 다문화가정 병어 요리대회, 축하공연(6급) 6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축제 기간 다양한 병어 요리를 맛

## 전북

### 전주대사습놀이 내달 7일 열린다

#### 한옥마을·덕진공원 일대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시대 관소리, 백일장, 무예 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습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1975년 전주에서 관소리와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으로 첫 대회가 부활한 뒤 매년 단옷날을 전후해 열리고 있다. 제1회 오정숙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이일주, 조봉달, 은희진, 전인삼, 윤진철, 왕기석, 허은선씨 등 내로라하는 명창이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됐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마실길 데이지꽃 만발. 부안마실길에 데이지 꽃이 최근 만발해 탐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유쾌함, 휴식, 사랑스러움, 낙천, 풍부 등의 꽃말을 가진 데이지는 부안마실길 5코스인 모항갯벌 체험길가에 조성돼 있다. /부안=장재용기자 jyy0681@

### 학폭 피해학생 치유 기관 개관

전북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치유하는 전담기관이 문을 연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안정 및 건강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치유센터'를 개소한다. 전주시 덕진동 두드림존 2층에 마련한 마음치유센터는 도교육청과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 순창 훈몽재 야외강학소 인기몰이

#### 하서 김인후 선생 정신 계승 문화유적답사 관광객 북적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해 순창군이 복원한 훈몽재 옛터에 들어선 야외 강학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순창군은 27일 "유서 깊은 백방산 자락 훈몽재터에 가로 세로 3m 크기인 초미야 야외강학소를 지난 16일 설치한 후 유학관련 대학생들의 단기 교육장소로, 관광객들의 문화유적답사지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4일 순창고등학교 학생 150여명이 훈몽재를 찾아 문화유적답사 여행을 하는 등 향토문화체험을 했다. 이들은 훈몽재 산장 김충호 선생으로부터 훈몽재에 대한 소개와 순창의 전통, 역사,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절의·문장의 삼정신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한편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선생이 명종3년(1548년)에 순창 쌍치 점암



바로서는 아니더라도 훈몽재에서 일자 문성을 바라보며 공부하면 선현의 영기를 받아 공부도 잘되고 수십년 후에는 정철 선생과 같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칠야삼경(漆夜三更)의 반딧불 역할을 하는 국가栋梁이 될 인재 양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훈몽재는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가위, 전라도선 '가세' 경상도는 '가시계'

#### 국민대생 3년째 남원서 방언 조사 눈길

방언 조사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 학생들이 3년째 전북 남원시 아영면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는 27일 "지난 22일 국민대 국어국문학과 방언학 수업 수강생 52명이 지난 2010년부터 아영면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언에 서 인근석 국민대 국문과 교수와 학생들은 우리나라 방언(사투리) 차이의 정도성을 연구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시·도 연접지역인 아영·인월·운봉지역을 대상으로 정했다. 학생들은 먼저 조를 이뤄 오산, 유곡 등 아영·인월·운봉지역의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며 각 마을 어르신들이 쓰는 어휘를 조사하고

## 단신

### 부안, 낚치 종묘 50만마리 방류

부안군은 27일 "국내외적 수산업의 여건변화, 남획,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군 관계자, 어촌계원 등 50여명은 임수도 연안 해역에 낚치

### 고창, 스티로폼 재활용 평가 우수지자체

고창군은 27일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 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전국 2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시, 부산 서구,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는다. 전북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지난해 스티로폼을 포함한 다양한 재활용품 845톤을 수집 폐자원 활용을 촉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남원, 축산농가 사료자금 저리 융자

전북 남원시는 27일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최근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175억원을 연리 1.5%, 2~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

### 전주, 재개발 해제 지역 도시재생사업

전북 전주시는 27일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초 전주지역 정비예정구역은 44곳이었으나 이 중 농소동의 가자촌2, 동서학동의 전주교대 인근, 송천1동의 학암, 동산동의 월곡, 인후동의 전